

“백혈병 이겨내고 경찰관 꿈 위해 노력할게요”

광주북부경찰, 조유하 양 꿈 응원...일일 체현 행사 마련

청소년경찰학교서 교육 받고 두암지구대 순찰차 타고 순찰 등 멘토링 프로그램 통해 병마 이겨낸 선배 경찰 응원도 받아

급성 백혈병과 싸우면서도 경찰관 꿈을 잃지 않았던 16세 소녀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소원을 이뤘다.

조유하(16·사진)양은 지난 16일 오전 광주북부 청소년경찰학교에서 꿈에 그리던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다.

초등학생 시절 주변 사람을 돕는 경찰관의 모습에 반한 조양은 공부는 물론 합기도·검도 등 무술을 배우며 꿈을 키웠다.

지난해 무기격각과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조양은 급성 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5차례에 걸친 항암치료와 함께 남동생으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뒤 지금은 주 2회 병원을 찾고 있다.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메이크어위시 한국지부는 조양의 사연을 듣고, 지역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양은 경찰의 날을 앞둔 지난 16일 광주북부 청소년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경찰 제복을 입은 뒤 시뮬레이션 사격을 진행했다. 이어 두암지구대 순찰차를 타고 지역 순찰도 체험했다.

조양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같이 힘든 투병 생활을 이겨낸 선배 경찰도 만나볼 수 있었다. 멘토는 8년 전 진단받았던 교묘세포중(약성 뇌종양의 일종)을 이겨냈던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장택수 경위로,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양을 응원했다.

조양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메이크어위시 한국지부가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 'EDM(Every Dream Matters)·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를 통해

진행됐다. 메이크어위시는 백혈병, 뇌종양, 림프종 등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아동(만 3세~18세)의 소원을 이뤄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유연재 기자 yjyou@

나주 다시농협, 집중호우 피해 마을에 생필품 후원



나주 다시농협 이계익(왼쪽) 조합장과 유수석 전무 등 임직원들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다시면 죽산리 화동마을 등 5개 마을회관을 방문해 3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나주 다시농협 제공)

전국환경교육연합 임직원들, 담양서 환경교육



전국환경교육연합(상임공동대표 심학보) 교수요원 직무연수가 21일 전남 담양군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안기권)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전문가와 함께하는 환경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는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이 주최하고 전국환경교육연합이 주관했다.

연수는 정철 전국환경교육협회장(대구대 과학교육학부)의 ‘지속가능 환경교육’과 이승진 유튜브 전문가(손안의 공장 대표)의 ‘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환경교육 담당자들에게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해 관찰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상을 제작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박종철 전국환경교육연합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지난 40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환경교육을 해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미래 세대에겐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지금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환경교육연합은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을 비롯해 강원도자연학습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충북자연학습원,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대전 만인산 푸른학습원, 경남환경교육원, 경북환경연수원, 제주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여상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서 교육부장관상

온열가방에 IoT 탑재 등 금상 2명·동상 3명 배출

광주여상이 '제17회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Be the CEOs)'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2명의 학생이 금상을, 3명의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사진>



템 발굴을 위해 개최된다.

광주여상 창업동아리(S.O.S) 소속 2학년 지기은양은 온열패드가 부착된 가방에

사물 인터넷(IoT)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같은 동아리 소속 2학년 정내정양은 기존

옷걸이에서 옷 훑러내림을 방지하는 'O-H Hanger'로 금상을 수상했다.

또 혼밥족을 위한 어플 'TOGETHER' 등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출품작들이 선보여 2학년 서민교양, 1학년 박수현·박승아양이 동상을 수상했다.

광주여상 창업동아리(S.O.S)의 성과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스마트 재산 경영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창업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될 예정이다. 광주여상은 확립적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고교형제제를 통해 다양한 교과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00 중계방송 2020 국경감사 -대검찰청
[11]	00 안녕 우리말(재) 05 이웃집 찰스(재) 55 UHD 숨터	00 도도술술라라술(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방송 연금복권 720+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모
[1]	00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특선 다큐멘터리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시사 직격			00 뉴스브리핑
[3]	20 KBS 재난방송센터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기분 좋은 날(재)	00 특목 보습설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또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다큐플러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펫 비타민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도도술술라라술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투페이스	40 창사특별기획대담 마한, 나주의 빛이 되다	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5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20 통합뉴스룸 ET(재) 50 사랑의 가족(재)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형사 가제트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 딱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미라클러스: 레이다비그와 블랙캣
07:15 로보카 폴리	12:25 독도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45 다큐 잇it
0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3:00 명일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미니특대급 슈퍼공룡파우2	14:45 세미와 매직큐브	<공금한 이야기, 중국-영웅호걸 전>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30 한국기행
09:00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가을 사냥꾼 4부 가을바다, 살아있네!>
09:15 로보카폴리 송송유지엄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50 파란만장
09:30 롤랑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6일 戊戌) ☎ 010-9790-8237

<p>36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48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60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72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괜찮은 편이다. 84년생 작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으니 흙뻑 흡수하고 제대로 활용하자. 96년생 기다려야 할 때다.</p> <p>행운의 숫자 : 37, 72</p>	<p>42년생 적시의 정지는 활력이 되어 줄 것이다. 54년생 상황 운에 따라라. 66년생 아니다 싶으면 접어라. 78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90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 02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38, 97</p>
<p>37년생 충분히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이다. 49년생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61년생 발효되는 못 미치더라도 틀림없겠다. 73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져 애를 먹겠다. 85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97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행운의 숫자 : 32, 79</p>	<p>31년생 현상 유지만 하여도 선방할 것이다. 43년생 체면 차리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이니라. 55년생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 67년생 실의를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뜻을 확실히 펼쳐도 좋을 때가 되었다. 91년생 안도의 한숨을 들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p> <p>행운의 숫자 : 80, 93</p>
<p>38년생 있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50년생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차분하게 대응하라. 62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면서 대처할 수 있다. 74년생 노출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86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하리라.</p> <p>행운의 숫자 : 54, 86</p>	<p>32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사필귀정하리라. 44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56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나야 할 바쁜 날이다. 68년생 겉으로는 병환되어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제각각임을 알아. 80년생 반드시 육식을 가려야 한다. 92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효과도 굉장하다.</p> <p>행운의 숫자 : 22, 51</p>
<p>39년생 미흡한 점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51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용이하다. 63년생 해결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난감해 하는 양태이다. 75년생 밤상하고 다닌다면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87년생 작은 불똥이 튀어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99년생 실행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p> <p>행운의 숫자 : 06, 53</p>	<p>33년생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실행해도 좋은 판도이다. 45년생 형식적인 허울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낫다. 57년생 날날이 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69년생 지구력의 강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함께 한다면 발전적인 힘이 생긴다. 93년생 들여다보고만 있지 말고 결단을 내릴 때이다.</p> <p>행운의 숫자 : 41, 75</p>
<p>40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52년생 힘든 만큼 배려해서 향후의 결실은 알할 것이다. 64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훌륭한 구조물이 들어설 수 있다. 76년생 의문이 가는 대목이 있거든 속속들이 점검하라. 88년생 요절 복통할 노릇이다. 00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p> <p>행운의 숫자 : 18, 50</p>	<p>34년생 구제화 되면서 가능성을 높게 되느니라. 46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물어간다. 58년생 함참하여야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자. 82년생 대세를 관망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유익하다. 94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p> <p>행운의 숫자 : 16, 62</p>
<p>41년생 집적지 못한 붕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53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리라. 65년생 원래부터 존재했던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77년생 이왕이면 다중적인 복합 기능이 경제적이다. 89년생 여러 가지가 겹치는 형상이다. 01년생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경계할 일이다.</p> <p>행운의 숫자 : 28, 82</p>	<p>35년생 분주한 시각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번거롭게 한다. 47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집착성도 절실히 요청 된다. 59년생 보기가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71년생 징후가 보일 때 즉시 손을 써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83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95년생 간절히 추구한다면 얻을 수 있다.</p> <p>행운의 숫자 : 24, 92</p>